

빼앗긴 문화유산의 자존심

신찬균

세계일보 논설위원 · 문화재위원

지금은 고인이 된 프랑스의 미테랑대통령은 고속철 '테제베'(TGV)세일을 위해 방한했을 때 우리의 고문서 한권을 달랑 들고 왔었다. 마치 일이 잘되면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책을 반환이라도 해줄 것처럼 문화대국의 아량을 적어도 걸으려는 배풀었다.

함께 고서를 가져온 도서관 여직원이 울며 못주겠다고 매달리는데도 미테랑대통령은 여봐란 듯이 청와대를 찾아가 의궤(儀軌) 한권을 큰 선심이라도 쓰듯이 놓고 갔다. 그 자리에서 한-불 두 정상이 합의를 본 조건은 우리 고서의 '영구 무상임대'였다. 사실상 반환하겠다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프랑스는 얼토당토 않은 조건을 내걸더니 되돌려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국내법상 반환이 불가능하다느니, 등가등량(等價等量)의 우리 고서를 맡기고 무기한 대여형식으로 가져가라는 고사세였다. 노골적으로 돌려줄 수 없다는 오리발이었다. 국제적 신의를 저버린 교묘한 외교적 행태다. 프랑스가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은 굳이 '문화재는 원산지로 반환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결의안을 내세우지 않아도 국제적 윤리에 관한 문제다. 하물며 무력으로 빼앗아간 데다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약속한 고서반환을 어기다니...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다. 나라 안에 있는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있는 문화재도 그 소재를 찾아나설 때다. 이 판국에 주기로 약속한 고서마저 못 찾다니,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때마침 프랑스에서는 톰슨사태에 대한 어슬픈 해명을 한답시고 특사를 보내 왔다. 특사란 누구인가. 국가간에 오해가 있거나 긴장관계가 발생했을 때 파견하는 사절이다. 막상 청와대를 방문하자 우리 김대통령은 4년이나 끌어난 외규장각 도서를 지적하면서 "차라리 돌려준다고 약속이나 하지 말지..."라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우리의 출판문화는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한 장교는 조선에는 어느 집을 가도 책이 그득하다고 기록한 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고서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인쇄국을 둘러싸고 중국이 자기나라가 먼저라고 도전을 해오고 있다. 중국은 예부터 종이·화약·지남철과 함께 인쇄술을 자기민족의 '4대 발명'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한국이 오는 5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세계 최초의 인쇄물임을 공인받으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성전을 선포했다. 4대 발명 가운데 한가지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다. 얼마 전에는 국가문물국의 협조로 학자 및 전문가들의 회의가 있었고, 이른바 성전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고서 가운데 이 《다라니경》보다 앞선 인쇄물은 없다. 파리에 있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고려의 《직지심체요절》과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인쇄국임을 실증적으로 공인받는 문화재들이다. 1966년 불국사의 석가탑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이 《다라니경》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770년에 간행된 일본의 《백만담다라니경》이 세계 최고였었다. 그러나 일본의 《다라니경》은 도장 또는 스탬프로 날인하듯이 한 낱자에 불과하나 우리의 《다라니경》은 경문 전부를 새기고 두루마리 형식으로 장정한 책이어서 가위 세계 으뜸이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인쇄물의 공인을 빼앗긴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틀림없이 간행연대나 목판인쇄의 기원연대로 봐서 엄연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인쇄국인데, 누가 감히 이의를 다는지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

집중 취재	2	환경시대, 출판에도 '녹색' 바람 재생지 출판사례 늘어 ... 가격경쟁력은 떨어져
출판인 칼럼	3	책 사면 '벌금' 무는 나라 — 윤청광
출판시평	4	'따라하기' 출판, '따라 읽는' 독자들 — 김기태 실용·인문 분야에 엇비슷한 책들 쏟아져
얼굴	6	중국 고전 《설원》 완역한 임동석 교수
화제의 신간	7	김현창 교수의 《세계문학 속의 동양사상》
출판화제	8	우리의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
	9	80년대 문제작가 3인의 새 장편
	10	'인지과학'의 깊고 너른 바다를 헤엄친다
	11	20세기의 끝에서 되돌아본 사상과 인물
화제의 출판	12	일본학연구소 펴낸 '일본학 총서' 시리즈 · 외
출판 포커스	13	'쉬운' 책과 '어려운' 책의 과제 — 이중한
연재 기획	14	우주의 비밀을 대중에게 열어보인 교양과학서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①
도서전 참관기	16	'97 도쿄국제도서전을 돌아보고 — 박준영
재미있는 기획산책	17	'양면의 얼굴을 지닌 동전' — 장익순
나의 학문과 책읽기	18	하이데거의 육필 한 점 — 성진기
서평	20	홍윤식 《한국의 불교미술》 — 김영주 이남호 외 《한국 대하소설 연구》 — 김외곤 21 오병현 《평화통일은 가능한가》 — 김영윤 22 코헨 외 《이야기하기의 이론》 — 이효인 타운젠트 《어린이책의 역사》 — 오춘식 23 호프만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 이필렬
책이 있는 풍경	24	따뜻한 감동 전하는 음악의 전도사 《나는 작은새 금난새》 펴낸 지휘자 금난새씨의 서가
리포트	26	삼성문화재단 기획 '일본문학의 세계화과정 기초 연구' 결과
세미나	27	한국출판학회 주최 '한·중 출판학술회의' 논문 요지
이 책 그 사람	28	《시와 소설을 찾아가는 여행길》 펴낸 임동현씨 《탐험사 100장면》 펴낸 이병철씨 29 《소가 웃을 일이다》 펴낸 장장식씨
	30	새책 속으로 / 34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③